

비행관련 변인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

김성이* · 김만지**

임신한 10대 여자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 알콜과 약물남용, 가출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임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는 적었다. 본 연구는 비행관련 변인들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자청소년의 임신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미혼모보호시설(서울, 대구, 청주, 춘천, 평택, 광주)에 입소한 10대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만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에, 미혼모들이 직접 완성한 질문지를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10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표집은 미혼모들이 있는 시설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의도적 표집 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비행은 음주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에 약물 경험(본드·가스·환각제), 절도·돈 뺏기(행 뜻는 것), 폐싸움, 그리고 급우·하급생 때리기는 과반수 이상이 경험하지 않은 소수 비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비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로 혼자하기 보다는 집단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비행관련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을 예측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학교종퇴,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급우·하급생 때리기와 급우·하급생을 때린 비행 친구 수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교중퇴가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 연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중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학교, 가정, 사회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급우·하급생 때리기가 10대 여자청소년 임신의 지연연령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사실은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단지 10대 임신의 지연연령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급우·하급생 때리기와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이 학교,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이러한 개입의 노력들은 비행에 노출된 10대 여자청소년들이 처음 임신하는 연령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 문제제기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1991년 전체 미혼모 중 10대가 24.3%를 차지하였고, 1993년엔 32.4%, 1996년엔 42.5%, 1997년엔 47.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00:9). 여자중고등학생 806명을 대상으로 한 김만지(2002c)의 연구에서는 임신과 출산 경험이 각각 4.3%, 0.5%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 임신의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비행을 들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임신한 여자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 알콜과 약물남용, 가출을 포함한 다양한 비행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ncott & Smith, 2001). 또한 비행력 없는 여자청소년들 사이에서는 12%가 임신을 했으나 여자청소년들이 한두 가지의 비행행동에 참여할 때 임신율이 26% 증가하고 3가지 이상의 비행에 참

여한 경우에는 임신율이 6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Lancott & Smith, 2001) 비행과 여자청소년 임신과의 강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이른 성행위는 학교중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 결혼의 불안정성과 같은 부정적이고 발달론적인 결과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제기된다. 특히 10대 미혼모는 20대 미혼모보다 학업 중단으로 인하여 미래에 비전문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고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받고 임신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oosa, 1991; 윤미현, 2000:2)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여자청소년 임신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임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행관련 변인이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임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예방적인 개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한 10대 여자청소년들은 어떤 비행을 경험하는가?

둘째, 임신한 10대 여자청소년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비행을 하는가?

셋째, 임신한 10대 여자청소년들의 비행 친구 수는 어느 정도인가?

넷째, 10대 여자청소년들의 첫 임신 연령과 관계있는 비행관련 요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10대 여자청소년들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력 있는 비행관련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1. 10대 여자청소년과 임신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미혼모 1,406명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4.9%이었으나, 1996년 서울시부녀복지연구회산 미혼모 수용 미혼모 2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0대가 49.7%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백만 청소년 이상이 임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15-19세 여성가운데 11%가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 가량의 80%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만지, 2002a:85-86).

주로 10대에 임신을 하는 여자청소년들은 강제나 충동에 의해 성관계를 하고 성과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주연옥, 1997)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임신중절을 못해 미혼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영주, 1998). 또한 10대 미혼모의 부모는 20대 미혼모의 부모에 비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이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0대의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비행이나 혼전 임신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영주, 1998). 이러한 결과는 10대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의존해야 할 부분을 동료집단에 대리 의존하기 때문에 성인들의 충고나 경고를 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자기확신이 부족한 10대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과 부족한 역할 모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른 성행위와 비행으로 연결된다는 Allen-Meares(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미혼모가 됨으로써 겪게 되는 영향은 20대 미혼모보다 10대 미혼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zak, 1990; 윤미현, 2000:2). 10대 여자청소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분의 또래들이 갖는 정체감을 추구하기보다는 임신과 임신으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발달뿐 아니라 유아와의 관계에서도 부적응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정서를 겪게 된다. 사실 청소년기의 신체적, 성적 성숙은 발달론적 과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성장은 갑자기 중단된다. 청소년은 임신을 자기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의존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의 상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분리의 형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불안,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분노, 그리고 우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임신한 청소년의 13%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McWhiter, McWhiter, & McWhiter, 1998). 또한 많은 임신한 청소년들은 유산을 선택하고 낮은 현실감, 과도한 불안, 억압, 부인, 미래예측 능력 부족 등을 포함하여 손상된 결정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cWhiter, McWhiter, & McWhiter, 1998).

이렇게 10대의 임신은 여성의 삶에서 불확실한 시기이며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미혼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양서비스가 대부분이고 불만보조와 숙식보호 등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다(주연옥, 1997).

2.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관련 변인들

몇몇 연구들(Hockaday, 1998; Nitz, 1999; Lanctot & Smith, 2001)에서 청소년기의 임신이 약물남용, 학교문제 등 여러 고위험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ckaday(1998)는 비행행위를 하는 10대

들이 성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10대보다 성행위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고 밝혔다. Elliott와 Morse(1989)는 10대들이 처음에는 비행행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는 약물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성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 청소년 행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문제의 다양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위험 요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연구 동향들(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 & Turbin, 1995; Goff & Goddard, 1999)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개인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초점을 둘으로써 다각적이고 직접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Hawkins와 Weis(198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10대들은 성인기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는 동안 가족보다는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동료들이 일상적인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 이는 청소년 비행이 집단 현상의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탈행동도 동조행동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양식화된 행동(culturally patterned behavior)이란 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를 학습하여 그것을 내면화하여 동조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 일탈자가 되는 것도 자기 주위의 문화 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차별접촉이론과 일치한다(김성이·강지원·구본용·황순길, 1996:37).

이와 같이 10대 청소년 임신과 관련된 비행에 관한 외국의 활발한 연구 경향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 임신과 관련된 비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관련 변인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미혼모보호시설(서울, 대구, 청주, 춘천, 평택, 광주)에 입소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에 미혼모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지를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조사에 응한 사람 가운데 10대 여자청소년 10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집은 미혼모들이 있는 시설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택하였다.

2. 측정도구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한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실시한 설문지 가운데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직접 경험해 본 비행과 누구와 함께 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제시된 항목으로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절도나 돈 뺏기(뺑 뜯기), 패싸움이나 타인폭행, 약물경험 등이었다. 응답범주는 '한 적 없다', '주로 혼자서', '주로 여자들과', '주로 여자, 남자 함께'이었다. 그리고 경험을 한 비행 항목에서는 처음 시작한 나이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친구들의 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서 실시한 설문지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였다.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

험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제시된 항목으로는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절도나 돈 뺏기(뺑 뺏기), 패싸움이나 타인폭행, 약물경험 등이었다. 응답범주는 '없다', '1/4정도', '절반정도', '3/4정도', '거의 다' 등 5개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그밖에 조사대상자의 나이, 최종 학력, 부모관계,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단순적률상관관계,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기술적 분석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05명 중 만14세-만15세가 10.5%(11명), 만16세-만17세가 26.6%(28명), 만18세-만19세가 62.9%(66명)이고 평균연령은 만17.91세로 나타났다. 첫 임신 연령에서는 만18세-만19세가 40.0%(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12세-만13세도 2.9%(3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서는 중학교가 24.8%(26명), 고등학교가 62.9%(66명)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 상태에서는 중퇴가 47.6%(50명), 졸업이 24.8%(26명), 재학

중이 16.2%(17명)로 중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모님은 친부모가 42.9%(4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모만 있는 경우와 친부와 계모가 각각 16.2%(17명)로 나타났다. 한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친부모와 혼자가 각각 28.6%(3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친모가 15.2%(16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가소유가 44.8%(4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세 29.5%(31명)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분류	내용	빈도(명)	백분율(%)
현재 연령	만14세-만15세	11	10.5
	만16세-만17세	28	26.6
	만18세-만19세	66	62.9
	계	105	100.0
첫 임신 연령	만12세-만13세	3	2.9
	만14세-만15세	18	17.1
	만16세-만17세	39	37.1
	만18세-만19세	42	40.0
	무응답	3	2.9
	계	105	100.0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	중학교	26	24.8
	고등학교	66	62.9
	무응답	13	12.3
	계	105	100.0

분류	내용	빈도(명)	백분율(%)
현재 등록 상태	졸업	26	24.8
	재학	17	16.2
	중퇴	50	47.6
	무응답	12	11.4
	계	105	100.0
부모님	친부모	45	42.9
	친모	17	16.2
	친부	10	9.5
	친부+계모	17	16.2
	친모+계부	5	4.8
	계모	1	1.0
	아무도 안 계신다	7	6.7
	무응답	3	2.9
	계	105	100.0
지금 함께 사는 사람	친부모	30	28.6
	친모	16	15.2
	친부	5	4.8
	친부+계모	10	9.5
	친모+계부	4	3.8
	혼자	30	28.6
	무응답	10	9.5
	계	105	100.0
현재 살고 있는 집	자가 소유	47	44.8
	전세	31	29.5
	월세	12	11.4
	영구임대	5	4.8
	기타	10	9.5
	계	105	100.0

2.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비행 유형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비행 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비행은 음주로 조사대상자의 5.0%만 제외하고 95%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못지 않게 디스코장·다방·술집·당구장 등 출입, 흡연, 가출, 무단결석을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숫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약물을 경험한 비율은 4.0%로 다른 비행 유형에 비해 특히 경험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급우·하급생 데리기, 패싸움을 경험한 비율도 30% 전후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비행 유형

단위 : %(명)

비행 유형 비행 경험 유무	흡연	음주	디스코장· 다방·술집· 당구장 등 출입	가출	무단 결석	절도· 폰 켓기(병 뜻는 것)	급우· 하급생 데리기	약물경험 (봉드· 가스· 환각제)	패싸움
한 적 없다	21.0(21)	5.0(5)	18.8(18)	32.3(32)	34.0(33)	84.7(83)	67.0(67)	96.0(96)	70.3(71)
한 적 있다	79.0(79)	95.0(95)	81.2(78)	67.7(67)	66.0(64)	15.3(15)	33.0(33)	4.0(4)	29.7(30)
계	100.0 (100)	100.0 (100)	100.0 (95)	100.0 (99)	100.0 (97)	100.0 (98)	100.0 (100)	100.0 (100)	100.0 (101)

3. 조사대상자가 함께 비행을 경험한 사람

조사대상자들이 비행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비행의 유형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함께 비행을 경험한 사람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혼자서 비행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을 할 때 대부분이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비행을 하는 집단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비행의 유형에 따라서 주로 여자친구들과 하거나 혹은 여자·남자 친구들과 함께 하는 등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흡연, 음주, 디스코장·다방·술집·당구장 등 출입 그리고, 경험한 숫자가 아주 소수인 약물경험의 비행 유형은 남녀 혼성 친구들과 함께 비행을 경험하는 경향이 여자친구들과 함께 하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절도·돈 뺏기(뺑 뺏는 것), 급우·하급생 때리기 비행 유형은 여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경향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과 무단결석도 비교적 여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경향이 혼성의 친구와 함께 하는 경향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가 함께 비행을 경험한 사람

단위 : %(명)

	흡연	음주	디스코장· 다방·술집· 당구장 등 출입	가출	무단 결석	절도· 돈 뺏기(뺑 뺏는 것)	급우· 하급생 때리기	약물경험 (봉드· 가스· 환각제)	제약음
주로 혼자서	0.0(0)	2.1(2)	1.3(1)	11.9(8)	23.4(15)	6.7(1)	3.0(1)	0.0(0)	0.0(0)
주로 여자 친구들과	30.4(24)	17.9(17)	23.1(18)	50.7(34)	42.2(27)	80.0(12)	81.8(27)	0.0(0)	76.7(23)
주로 여자· 남자 친구들과	69.6(55)	80.0(76)	75.6(59)	37.4(25)	34.4(22)	13.3(2)	15.2(5)	100.0(4)	23.3(7)
계	100.0 (79)	100.0 (95)	100.0 (78)	100.0 (67)	100.0 (64)	100.0 (15)	100.0 (33)	100.0 (4)	100.0 (30)

4. 조사대상자의 비행 친구 수

조사대상자의 비행 친구 수는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몇몇 비행 유형을 제외하고는 많은 친구들이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음주, 디스코장·다방·술집·당구장 등 출입은 조사대상자 친구들의 거의 다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과 무단결석을 경험한 친구 수는 1/4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친구의 80% 이상이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도·돈 뺏기, 급우·하급생 때리기, 약물경험(본드·가스·환각제), 그리고 패싸움을 경험한 비행 친구 수는 한 명도 없다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돈 뺏기, 패싸움은 과반수 이상의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은 비행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약물경험은 84.29%가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비행 친구 수

단위 : %(명)

	흡연	음주	디스코장· 다방·술집· 당구장 등 출입	가출	무단 결석	절도· 돈 뺏기(뺏 앗는 것)	급우· 하급생 때리기	약물경험 (본드· 가스· 환각제)	패싸움
한 명도 없다	6.7(7)	2.9(3)	7.8(8)	18.6(19)	19.0(19)	55.4(56)	45.1(46)	84.2(85)	52.0(53)
1/4 정도	16.3(17)	14.4(15)	15.7(16)	29.4(30)	35.0(36)	24.8(25)	26.5(27)	12.9(13)	19.6(20)
반정도	21.2(22)	15.4(16)	21.6(22)	17.6(18)	16.0(16)	5.0(5)	6.9(7)	2.0(2)	15.7(16)
3/4 정도	9.6(10)	7.7(8)	5.9(6)	8.8(9)	6.0(6)	3.0(3)	5.9(6)	0.0(0)	3.9(4)
거의 다	46.2(48)	59.6(62)	49.0(50)	25.5(26)	24.0(24)	11.9(12)	15.7(16)	1.0(1)	8.8(9)
계	100.0 (104)	100.0 (104)	100.0 (102)	100.0 (102)	100.0 (100)	100.0 (101)	100.0 (102)	100.0 (101)	100.0 (102)

5.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

1)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비행관련 변인들과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모두 비행관련 변인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비행에서는 흡연, 가출, 무단결석, 절도, 급우·하급생 때리기, 그리고 패싸움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모두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강하며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급우·하급생 때리기 변인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가장 강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비행 친구 수 변인에서는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절도, 급우·하급생 때리기, 그리고 패싸움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강하며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흡연과 급우·하급생 때리기는 r 값이 .4에 가깝게 나타나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 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변 인		첫 임신 연령
조사대상자의 비행 경험	흡연	-.259**
	가출	-.226*
	무단결석	-.346**
	절도	-.186*
	급우·하급생 때리기	-.387**
	패싸움	-.187*
조사대상자의 비행 친구 수	흡연	-.394**
	음주	-.271**
	가출	-.263**
	무단결석	-.368**
	절도	-.342**
	급우·하급생 때리기	-.380**
	패싸움	-.315**

*p<.05 **p<.01

2) 학교중퇴 변인에 따른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학교중퇴에 따라 첫 임신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학교중퇴 경험 유무에 따라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중퇴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이 학교중퇴 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에 비해 첫 임신의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중퇴 경험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임을 말해준다.

<표 6> 학교중퇴 변인에 따른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의 차이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학교중퇴 경험 유	49	16.84	1.64	87.805	-4.982***
학교중퇴 경험 무	41	18.39	1.32		

***p<.001

6.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앞서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여러 변인과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10대 여자청소년이 처음 임신하는 데에는 한 변인이 아닌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처음으로 비행을 시작한 나이와 비행 친구의 수는 청소년이 처음 임신하는 연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케 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 예측변인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 회귀분석으로 10대 여자청소년 첫 임신 연령의 예측모델을 살펴보았다.

<표 7>에서 제시된 비행관련 독립변인들의 첫 임신 연령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전체의 결정계수는 39.6의 설명력을 나타나고 있다. 즉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학교중퇴와 급우·하급생을 때리기 변인이 전체 변량의 약 39.6%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교중퇴의 Beta값은 -.365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7>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첫 임신 연령	
		Beta	SE
나의 비행 경험	학교 중퇴	-.365**	.439
	급우·하급생 때리기	-.352*	.237
상수		19.134	
F값		3.273***	
R ²		.396	

*p<.05 **p<.01 ***p<.001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비행관련 변인들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자청소년들의 임신 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105명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17.91세로 첫 임신 연령은 만18세-만19세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는 중학교가 24.8%, 고등학교가 62.9%이었으며 현재 등록 상태에서는 중퇴 47.6%, 졸업 24.8%, 재학 16.2%이었다. 현재 부모님은 친부모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친부모와 혼자 산다가 각각 28.6%로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비행은 음주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디스코장·다방·술집·당구장 등 출입, 흡연, 가출, 무단

결석 승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약물 경험(본드·가스·환각제), 절도·돈 뺏기(뺑 뺏는 것), 패싸움, 그리고 급우나 하급생 때리기는 과반수 이상이 경험하지 않은 소수 비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비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로 혼자하기 보다는 집단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을 예측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학교중퇴, 급우·하급생 때리기와 급우·하급생을 때린 비행 친구 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첫째, 10대 여자청소년이 처음 임신하는 연령에 학교중퇴가 다른 비행관련 변인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10대와 20대를 포함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아동기의 학대경험, 학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래집단의 성행위 변인이 미혼모의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만지(2002b)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중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사건인데 이러한 비행이 다른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만한 일이다. 10대 여자청소년인 조사대상자 가운데 학교를 중퇴한 비율이 47.6%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학교체제 외부에 성 관련 프로그램이 상실화 되어야 한다. 학교중퇴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면 외에 가출, 비행, 범죄 등의 각종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가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중퇴는 교육병리현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한인영·홍순혜·김혜란·김기환, 1999:24). 미혼모들의 경우 임신 전후로 학교를 중퇴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학교체제 외부에 성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함으로써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Rotheram-Borus 등은 학교를 중도 탈락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법적, 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개입 결과 성 행동 패턴의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ASHA, 1998; 김만지, 2002a:88).

둘째, 조사대상자가 급우·하급생을 때린 경험과 이러한 비행을 한 친구 수가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로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행은 학교폭력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속성의 과정은 이른 성행위와 임신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방 전략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특정 개인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Hawkins & Weis, 1985).

셋째, 급우·하급생을 때리는 학교내의 폭력문제는 더 이상 학교 교사의 인력만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교사와 부모를 포함한 우리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학교체계의 개방적인 대안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 일례로 제도변화를 위해 학교환경과 사회환경에 변화가 요구된다. 먼저 학교환경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생주임, 진로상담주임, 교감, 교장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이 요구되며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기존의 학부모 조직을 활성화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한인영 외, 1999:172).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학생들의 교육적인 성취를 제공하는 장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이 교육적인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제공하여 학생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체계 마련이 구축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 마련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인간 복지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 교육자료집 개발연구.
- 김만지(2002a). 성교육과 10대 임신 예방. 사회복지, 152호, 봄호, pp.76-93.
- _____(2002b). 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2호, pp.71-85.
- _____(2002c). 여자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성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54호, 가을호, pp.170-186.
- 김성이·강지원·구본용·황순길(1996). 청소년 비행상담. 청소년대화의 광장.
- 보건복지부(2000).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 접근모형 개발.
- 윤미현(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연옥(1997). 일부 보호시설에 등록된 미혼모의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홍순혜·김혜란·김기환(1999).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학문사.

- Allen-Meares, P., Washington, R. O., & Welsh, B. L.(2000).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Third Edition. ALLYN AND BACON.
- Goff, B. G. & Goddard, H. W.(1999). Terminal core values associated with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dolescence*, 34, pp.47-59.
- Hockaday, C. M.(1998). A prospective study of teen pregna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pp.923-933.
- Lancot, N. & Smith, C. A.(2001). Sexual activity, pregnancy, and deviance in a representative urban sample of african american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pp.349-372.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A. M., & McWhirter, E. H. (1998). *At 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2nd ed.). New York: Brooks/Cole.
- Nitz, K.(1999).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a review of interventions and progra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4), pp.457-471.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Delinquent Factors Causing the
Age at First Pregnancy of Teenage Female Adolescent

Kim, Soung-Yee* · Kim, Man-Ji**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linquent factors causing the age at first pregnancy of teenage female adolescent. The primary of this study is to identity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2) examinee's and thier friend's delinquent behaviors and (3) factors that correlates the age at first pregnancy of teenage female adolescent and (4) factors that predicts the age at first pregnancy of teenage female adolescent. This study uses the data based on interviews with 105 teenage unmarried mothers selected purposive sampling from the 6 unmarried mothers protective facilities in Seoul, Pyungtak, Chunchon, Taegu, Chungju, and G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ean age of adolescent unmarried mothers was 17.91 years old and 47.6% was school drop-out. Second, the first age of teenage pregnancy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respondent's smoking, school truancy, gang fight, hitting a classmate and a lower-grade student. Also, it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friend's smoking, drinking, runaway, school truancy, stealing, hitting a classmate and a

*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 Researcher, Ewha Woman's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lower-grade student, and gang fight. Third, the school truancy, hitting a classmate and a lower-grade student, and friends who hit a classmate and a lower-grade student predicted the first pregnancy age of teenage mothers. Finally,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required to prevent the teenage pregnancy.